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 연구

박은혜(성결대학교/부교수)

pehgrace@sungkyul.ac.kr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된 한국교회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종교적 성숙의 과제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종교적 성숙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 형성 및 개발을 위한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교회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가 종교적 성숙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인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종교적 성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종교적 성숙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성서적 및 신학적 성숙의 개념과 종교심리학적 성숙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종교적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 이미지 개념과 성숙한 인간 삶과 관련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도록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 형성 및 개발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을 지적, 정서적, 행위적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지적인 차원의 교육으로 성서적 및 신학적 하나님 개념을 교육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존재로 노인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정서적 차원의 교육으로 노인들의 하나님 이미지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성찰 및 확인하도록 교육할 것과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 치유하기 위한 교육 상담적 접근으로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행위적 차원의 교육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조부모의 역할에 대해 교육할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으로 나타나도록 실천을 유도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

노인, 교회교육, 종교적 성숙, 종교성,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개념, 하나님 이미지

I. 들어가는 말

2017년 한국 사회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약 13.8%였으나, 2020년 약 15.7%로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약 20.3%로, 2035년에는 약 29.5%, 2050년에는 약 39.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9)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노인 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사회의 고령화는 교회의 고령화를 야기하였다.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기독교(개신교)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약 14.3%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7). 교회의 고령화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에 따른 교회 노인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주장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목회 사역 중 노인 사역의 중요성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감리교 교단에서 실시한 노인목회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교회의 37.63%의 교회가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가기 때문에 인적·물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로 하고 있는 노인목회 프로그램으로는 효도 관광, 식사 대접, 노인대학, 노인 성경학교, 실버 성가대, 동아리 활동 등으로 주로 친교를 위한 단기성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김정준 외, 2018, 58-61). 이외에 상황과 조건이 되는 중대형교회들은 교회의 사회복지적 측

면에서는 노인요양원, 독거노인 방문 및 반찬 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상담 등의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에 비해 교회의 대안은 부족한 상황이며 소형 교회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과거와 달리 길어진 노년기는 은퇴 후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노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고령화에 맞춘 전문성을 지닌 기독교 노인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교는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의 종교생활로 인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기도 하고, 외로움, 소외감, 고립감, 우울감 등 여러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김정희, 2014; 서문진희, 2010). 심지어 노인의 종교활동은 신체적 및 심리적 노화와 관련된 문제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동규, 2002, 52; 이영숙, 2010, 70-71). 예배 참여나 성경공부와 같은 소그룹 활동 등 교회에서의 종교활동은 노인의 우울증 감소와 삶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강성봉·조성숙, 2013, 340).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서의 종교활동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노인들의 심리적 및 정신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된 한국교회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종교적 성숙의 과제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종교적 성숙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 형성 및 개발을 위한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교회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가 종교적 성숙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인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종교적 성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교적 성숙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성서적 및 신학적 성숙의 개념과 종교심리학적 성숙의 개념을 정리하고, 종교적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하

나눔과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 이미지 개념과 성숙한 인간 삶과 관련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도록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 형성 및 개발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을 지적, 정서적, 행위적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교회 내의 구성원과 지역사회와의 구성원들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으로서 노인목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교육의 본질인 신앙 성숙을 위한 노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가 교회교육으로 노인의 신앙 성장 및 성숙으로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 및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II. 교회의 노인교육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많지만 교회교육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노인에 대한 이해, 교육목회적 측면과 사회복지적 접근, 그리고 교회교육적 측면에서의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장에서는 양면성의 측면에서 노인을 이해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최근에 진행되었던 연구들을 통해 노인교육을 위한 방향과 과제가 종교적 성숙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노인에 대한 이해

1)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

노인의 사전적 정의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다. 이때 나이가 많다는 것과 늙었다는 것에 대해 명확한 의미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나이가 많다는 것과 늙는 것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규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은 연령이다. 일정한 연령을 지난 사람들을

노인으로 분류한다. UN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규정하였던 것을 고령화 현상으로 2009년에 18-65세를 청년이라고 명명하였고, 66-79세를 중년으로, 80-99세를 노년으로 노인에 대한 연령을 새롭게 분류하였다(백찬규, 2017, 23). 그러나 이러한 연령 기준에 따라 노인을 규정하기에는 개인적 능력의 차이, 사회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 만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연령 기준에 대한 인식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였다(연합뉴스, 2021). 2005년의 경우,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0-74가 47.2%로 가장 많았고, 65-69세는 30.8%, 8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4.3% 있었다(정경희 외, 2005).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65세보다 노인으로 인식하는 나이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연령에 대한 기준도 달라진다.

노인을 규정하는 다른 기준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 정도이다. 그러나 노화 정도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여러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노인을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노화 과정보다 연령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노인을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노인을 규정하는 다른 견해로는 신체적 및 심리적 노화로 인해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직업에 따라 정년제 도나 연금 수급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으로 노인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조부모의 역할로 노인을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부모의 역할의 시작과 역할 수행에 있어서 개인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조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노인을 규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노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

치적, 경제적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한정란, 2005, 93-96).

2) 양면성의 측면에서 노인 이해

노인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쇠약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노년기의 발달은 양적인 성장, 즉 플러스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었던 청력, 시력, 미각, 치아의 약화, 순발력, 기억력, 육체적 힘, 소득의 상실 등의 외현적인 능력을 잃어가는 시기이다. 더불어 걱정, 고독, 소외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사회적으로는 역할이 점점 없어지게 되어 생산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인 상태가 되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며 상실을 경험하는 단계로 죽음에 더 가까이 임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정란, 2005, 100).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도 노인을 이해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능력을 상실하기도 하지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혜안이나 포용력, 통찰력을 발전시켜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한정란, 2005, 100).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은 여러 경험과 지혜로 인해 존경을 받기도 하는 시기이다. 인간 발달의 측면에서 노년기도 끊임없는 성장과 쇠퇴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년기도 단지 소외, 슬픔, 상실의 시기만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일 때, 시편 기자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 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시 92:14)라고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도바울은 나이가 들면서 다른 것들은 쇠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라고 고백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노화하고 있지만 내면은 오히려 새롭게 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후 5:1)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시간이며 은총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노인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존재이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며, 마침내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음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존재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2000, 50-5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인에게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인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독 노인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의 발달을 돕기 위함이다. 쇠약, 쇠퇴의 측면에서의 노인의 건강, 생활 등 생존을 위한 교육보다는 성장의 측면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짧지 않은 노년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및 성숙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노년기, 다음 세대로부터 존경받는 노년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한 노년기가 되도록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독 노인을 위한 최근의 선행연구를 통해 교회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노인을 위한 교회교육의 과제

1) 교육목회적 차원

기독 노인을 위해 교육목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한 이정관(2014, 403-406)의 연구는 기독 노인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돌봄의 과제로 지속적인 신앙성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노화의 준비와 적응, 창조적인 삶, 세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원, 세대 간의 화합 증진을 위한 교육, 노년기 삶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교육, 성경에 근거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위한 교육,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교육,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교육,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 기독교적 관점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시키는 해석을 위한 교육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형길과 다니엘 김(2016, 204)은 한국 인구 구조의 변화 중, 고령화 경향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으로 융합적인 노인 사역의 준비를 제안하

였다. 최근 한국교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가 융합되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노인 사역을 도입하여 교회 내 전문 부서의 설치와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시설의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김정희와 박은혜(2021, 257-263)는 코로나 시대의 기독 노인의 건강한 삶과 종교활동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지적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을 마리아 해리스의 교육목회 이론을 적용하여 비대면 시대의 교육목회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노인들을 위한 교육목회적 방안을 공동체(코이노니아), 기도(레이투르기아), 가르침(디다케), 말씀선포(케리그마), 봉사(디아코니아)의 커리큘럼 측면에서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정준(2017, 421-428)은 세계화 시대의 주요 사회문화적 트렌드와 연결하여 노인 문제와 노인목회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 신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한 자살률의 증가, 독거노인과 황혼이혼의 증가,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양극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인을 위한 목회적 과제로 노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한 전통이나 권위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노인들의 삶과 젊은 세대와의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인을 위한 목회적 과제로 노인들이 시대의 정신을 이해하고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생활양식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기독교의 문화 변혁을 위해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기독교적 가치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제시하였다. 셋째, 뉴테크놀로지 시대에서의 미디어 소수자인 노인들은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위한 목회적 과제로 미디어 소수자인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단절과 부적응을 극복하도록 안내하고 도와야 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탈종교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가치

나 권위에 대해 반박하며 회의와 불신이 만연하여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목회는 신앙 본질 회복으로서 영성을 추구하고 회복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선교 및 사회복지적 접근

박현식(2008)과 김정준(2009)은 노인을 위한 교육이 선교와 복지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박현식(2008)은 사회복지적 기능과 복지선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노인교육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Diakonia)가 선교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며 교회의 기능이 되도록 하는 복지선교의 과제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준(2009, 203-211)은 노인을 위한 기독교교육을 선교, 교육,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말하며, 노인 선교의 장으로서의 교회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 노인교육의 장으로서 교회에서 참여적 교육 방식으로 접근할 것, 삶의 실천과 체계화를 위해 노인 기독교교육의 사회 복지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노인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 이은성(2016, 175-183)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노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복지적 노인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교육과 복지 연계 전담부서의 조직과 인적자원의 양성’, ‘교회 재정 및 공간자원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노인들의 삶과 문제와 해결방안, 그리고 영적 차원까지 통전적으로 접근하고, 건강증진, 노인 권익, 여가활동으로서의 노인교육을 위한 ‘복지와 연계된 실천적 노인교육의 기반 조성’을 제안하였다.

3) 교회교육적 차원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들도 교회교육의 대상임을 언급하며 교회교육 측면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한 연구들이 있다. 윤갑수(2010, 334-344)는 평

생교육 차원에서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조명하며 교회 노인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빈약하며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일반 노인 복지 프로그램과 차이가 없으며 영적, 선교적 문제점이 있고, 다양하면서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교회 노인교육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앙을 통해 노년기를 의미있게 대처하고 인생의 결말과 영생을 누리도록, 즉 신앙적인 성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인교육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교회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선교적 내실화를 구현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급변하는 사회에서 젊은 세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창의적이며 상호작용 방식의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교회 내의 동료 노인들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지속적인 자기계발 교육과 죽음 준비를 위한 교회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교회 내 노인 자원봉사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교육의 체계화 및 전문화, 노인이 노인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 개발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활동적인 생산 인구로의 전환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을 위한 직종 개발과 직능교육, 다양한 노인 전문 직종 개발을 위한 교회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곱째, 영적 정보 콘텐츠들을 쉽게 접근하고 활동하도록 노인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신경(2011, 10-15)은 노년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성숙한 신앙적 삶으로 제시하고(3), 교육 내용으로 건강 유지, 건전한 인간관계의 형성, 자유, 영적 성숙과 죽음 대면하기, 후대를 위한 봉사 등을 구체화하여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명희(2011, 180-183)는 넬슨(C. E. Nelson)의 회중 중심교육론에 근거한 기독교 노인 신앙교육의 실재를 제안하였다.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여 신앙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설정하

고, 자아정체성 확립, 기독교 세계관 형성, 기독교 가치체계 형성을 위한 교육 내용을 담고, 예배, 친교, 탐구, 이슈 직면하기와 미디어 활용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앙공동체, 가정공동체, 사회, 자연, 세계를 넘어 사이버공간까지 포함한 교육 현장에서 상호작용하며 신앙교육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은정(2016, 189-195)은 노화의 과정을 웰에이징(well-aging)하도록 노인들의 삶을 재건하는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재건적 삶을 위한 교육을 생계 부양의 차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다양한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노년기의 은퇴, 죽음, 이혼, 배우자 사별, 요양원 수용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안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초월적인 삶의 영역을 알게 하고, 성숙된 자아와 신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노년기를 시작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에 관해 제안한 유은희(2016, 129-138)는 노인층의 세대차를 간과한 획일화된 노년교육을 지적하면서 '신중년' 혹은 '신노년'이라고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교회의 노인사역이 기존의 노인 세대를 위한 교육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신노년의 사회 및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길어진 노년기에 속한 사람들을 노인이라는 한 테두리에 넣고 교육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여러 영역에서의 노인들 간의 개인차와 노년기의 단계별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예배와 교육을 위하여 교회 내 연령별로 분리하는 현상에 대해 과연 성경적인 원리인지 질문을 던져보고 노인들을 다른 세대와 교체할 기회를 차단하지 않도록 교육적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독교 노인을 위한 교회교육 과제에 관한 연구는 교육목회적, 선교 및 복지적, 교회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고, 신앙 성숙을 위한 신앙교육적, 노인들의 연령과 개인차를 고려한 분리 및 통합적, 다양한 노인들의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적 측면의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III. 종교적 성숙

기독교 노인을 위한 교회교육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노인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시설, 재정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인을 위한 교육적 과제를 실시하는데 제한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의 대면에 익숙한 노인들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교육의 본질인 신앙 성장 및 성숙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질적인 과제를 추구하다 보면 그 외의 과제들이 부분적으로라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 종교적 성숙의 개념을 이해하고, 종교적 성숙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종교적 성숙이 교회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오스머(Osmer, 1995, 18)는 “교회교육의 목적은 신앙이 일깨워지고, 지원 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신앙이 존재하고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하였다. 신앙의 형성 및 성장을 거쳐 교회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성숙이 되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에 제시된대로 복음 전도와 제자도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가르침을 모두 포함하고 성장을 기대한다. 가르침을 통하여 성장을 일으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데 나아가는”(히 6:2)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는 종교적 성숙을 의미한다. 종교적 성숙의 구체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교육 계획 및 수행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적 및 신학적 관점과 종교심리학적 성숙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경적 및 신학적 성숙의 개념: 그리스도인 성숙의 화목 모델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 성숙의 개념을 설명한 하버머스와 이슬러(Habermas & Issler, 1996, 41-53)는 화목이 복음 전도와 제자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바탕과 기독교인의 실제 삶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공해주는 개념이라고 한다.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개인과 하나님, 개인과 자신, 개인과 이웃들, 개인과 피조물 사이가 깨어져서 다시 회복해야 할 네 가지 범주이다. 원래는 타락 이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자와 인간의 완전히 조화로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불가능해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가능해졌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고후 5:17). 화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화목을 요하는 첫 번째 범주인 개인과 하나님 사이는 말씀(message)으로, 두 번째 범주인 개인과 자신 사이는 변화(metamorphosis)로, 세 번째 범주인 개인과 이웃 사이는 사신(messenger)으로, 마지막 범주인 개인과 피조물 사이는 사역(ministry)으로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제시되었다(고후 5:18-21).

그리스도인의 화목을 위한 성숙의 과제는 사도행전 2:42-47에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구성 요소들을 설명한다. 화목을 위한 교회의 책임들을 네 가지 관계를 주제로 설명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교제(Communion)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이는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행 2:42, 47) 이루어졌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Community)는 성도들 간의 교제이다. 이는 “서로 교제하며”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행 2:42, 44)함으로 나타났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Character)은 개인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행 2:42) 가르침대로 헌신하여 성장 및 변화되어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짐을 통해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 피

조물(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명(Commission)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복음 전도를 말한다. 복음 전도를 위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행 2:45)를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까지도 희생적인 사랑과 물질적인 헌신으로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실천하였다. 네 가지 주제들로 네 가지 관계들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화목을 회복하여 성숙을 일으키기 위한 교회의 책임들이며, 이에 따라 세부 실제적인 교육목표들을 설정할 때 영향을 미치며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Habermas & Issler, 1996, 61-68).

2. 종교심리학적 성숙의 개념: 내재적 종교성

종교심리학에서 말하는 종교적 성숙의 개념은 올포트(Allport, 1959)의 종교성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올포트는 동일한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개인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내재적(Intrinsic)과 외재적(Extrinsic)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종교성향이란 종교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방향 및 목적으로 종교에 대한 개인적 태도이다. 종교적 성향에 따라 같은 사건과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외재적 종교성은 “종교가 삶에 있어서 주요 동기가 아니다. 종교는 단지 수단적인 역할을 한다 ... 삶에서 신조나 종교적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는다 ... 주요 동기는 항상 자신의 관심 때문이다”(Allport, 1959, 264-265). 외재적으로 동기를 지닌 사람은 그의 종교를 행복, 위안, 친교, 지위 등의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한다. 종교적 가르침이나 신조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자기 욕구에 맞춰 수용한다.

이와는 달리 내재적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 신념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에 종교적 가르침이나 신조를 적용하여 종교적 삶을 생활화한다. 종교를 다른 수단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종교 자체에 동기를 가지고, 종교를 통해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종교를 생활화하며 종교적 가치에 현

신하는 사람이다. 올포트가 말하는 종교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신앙 그 자체의 동기를 가지고, 도덕적인 일관성을 추구하며, 포괄적인 인생철학과 통전성,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잘 발달된 판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성찰적인 경향과 자기 비평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자기 객관성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완성된 존재로 보기보다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이며,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사람이다(Allport, 1985, 81-110). 올포트가 말하는 성숙한 종교성은 한 인간의 인격 구조 안에 있는 것으로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 및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성숙한 종교성은 모든 경험들을 하나의 의미있는 체계로 결합시키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성숙한 인격보다는 확실히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체제이다. 삶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을 제공하려고 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종교적 신앙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Allport, 180). 성숙한 인격의 속성과 통합하여 올포트는 인간 자신을 피조물인 타인과 세상을 창조주에게 결합시키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종교라고 보았다. 종교를 통해 종교 안에서 최고의 상황, 즉 신앙의 대상인 궁극적 실재, 하나님 자체를 발견함으로써 종교적 성숙을 향해 자신의 인격을 확장시키고 완성시키려는 궁극적 시도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였다(Allport, 206).

3. 종교적 성숙과 관련 있는 변인

성숙한 종교성은 인간 삶의 여러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종교적 성숙의 특징을 지닌 내재적 종교성과 종교적 삶과 관계있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숙한 종교성인 내재적 종교성은 종교적 헌신도를 측정하는 정통성과 교회 출석과 같은 다른 종교적 변인들과 긍정적으로 관계있었고, 외재적 종교성은 독단주의, 편견과 같은 것과 관계있었다(Allport & Ross, 1967). 내재적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외재적 종교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종교적 경험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Hood, 1971).

스캐퍼와 고서치(Scafer & Gorsuch, 1991, 458)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종교성은 또한 하나님 개념, 종교적 대처 또는 문제 해결 등 사람의 행동 방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내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 인자하고, 안정적이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협력적(The Collaborative Style) 또는 책임전가형(The Deferring Style)이었으며,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였다. 문제해결 양식에 있어서 자기 주도형(The Self-Directing Style)인 경향이 덜 했음이 나타났다.

성숙한 종교성과 인간 삶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지적, 정서적, 행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지적인 측면에서 비합리적 수준(김재석, 2008), 삶의 의미(조윤영·최봉도, 2017), 진로결정 수준(박미하, 2017) 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정서적 측면의 자존감, 우울(박미하, 2014; 오인근, 2014), 불안(제석봉·추진규, 1996), 죽음 불안(한경옥·전요섭, 2012), 삶의 태도 및 자살 생각(최창식·한재희, 2012), 심리적 안녕감(조윤영·최봉도, 2017), 부정적 정서(조영주·이지연·장진이, 2012), 불안 및 부적응(Allport & Ross, 1967; 제석봉·추진규, 1996),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등과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양식(제석봉·이성배, 1996), 병리적 종교 감정인 수치심(송욱·김윤주·한성열, 2009), 우울 및 자아통합감(강성봉·조성숙, 2013), 교회생활 만족도(이종석·정득, 2018) 등과 내재적 종교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인간의 행위적인 측면의 진로준비 행동(정민선·박미하, 2015), 종교적 대처와 분노 표현(최은경·김윤희, 2015), 부모의 양육태도(박은혜, 2015), 역경 후 성장(서유진·이규미, 2016), 개인의 역경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전혜정, 2003) 등과 긍정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이영숙(2009)의 연구에서는 종교활동 및 신앙성숙도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노화를 포함한 노인의 전인적인 측면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목 모델에서 말하는 성숙의 중요한 개념은 관계이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나님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 성숙한 종교성인 내재적 종교성은 신앙 그 자체, 즉 하나님 그 자체에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기로 인해 자신과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이루고 종교를 삶으로 살아낸다. 성숙한 종교성은 전인적인 측면에서 성숙한 인격적인 삶과 관계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성취된 종교적 성숙은 성숙한 인격적인 삶과 통합되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인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IV. 하나님 이미지

1. 하나님 개념과 하나님 이미지

기독교 신앙의 중요 개념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인간이 실제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의 경험과 성경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은 기독교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분이다. 인간의 발달은 연속적이어서 과거의 경험이 나중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경험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또한 인간의 발달은 여러 발달의 측면들이 통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등 개인의 여러 영역의 발달과 연결되어 일어나게 되므로 개인마다 독특하고 다르다.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여 인지 발달의 영역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

님 개념은 인지 발달에만 제한되지 않고, 심리적, 사회적, 도덕 발달과도 관계가 있다(Park, 2008, 115). 하나님 개념은 부모의 이미지로부터 기원되어 부모, 다른 주변 사람들, 세상과 많은 관계와 경험을 거쳐 신적인 개념으로 발전한다(Park, 131).

하나님 개념과는 달리 하나님 이미지는 내면에서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다고 상상하는 인격과 같은 것이다(Rizzuto, 2000, 170). 하나님 개념은 사교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지적 체계이고, 하나님 이미지는 삶의 과정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느끼는 총 집합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님 이미지는 출생 후, 부모-자녀 관계에서 기원하여 성장하며 겪게 되는 여러 경험에 따라 계속 첨가, 수정, 그리고 변형되어 간다(김난예, 2002, 277). 하나님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각 사람이 그리는 이미지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왜곡될 수도 있다. 하나님 이미지는 인간의 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중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적 성숙을 위해 필수적이며, 종교적 성숙은 인간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 이미지는 종교적 성숙 및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2. 하나님 이미지와 관련 있는 변인

하나님 이미지와 관련 있는 인간 삶의 여러 가지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지적, 정서적, 행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정·의 차원으로 하나님 이미지와 관련있는 변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전인적인 차원에서 인간 삶과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지적인 차원으로 자아개념(황혜리·김미경, 2004; Benson & Spilka, 1973), 자기개념 명료성(조윤옥, 2012), 비합리적 신념(황혜리·김미경, 2003),

그리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념(홍구화, 201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정서적인 차원으로 자존감(김사훈, 2005; 황동한·송정아, 2012; 황혜리·김경탁, 2005; 황혜리·김미경, 2004), 영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김지윤·황혜리, 2013; 황혜리·김지윤, 2012), 우울(황혜리·류수정, 2006), 노인의 죽음불안(이영미·조윤옥, 2013), 자기용서(황혜리·이은혜, 2016), 정신건강(홍구화, 2011), 생활만족도(황혜리·김미경, 2004) 등과 하나님 이미지와 관련성이 있음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행위적인 측면으로 부모의 양육태도(황혜리·김주현, 20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영희·박준하, 2011), 대인관계 능력(황동한·송정아, 2012; 황혜리·김미경, 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박미하, 2017), 적응 유연성(황혜리·김미경, 2004), 그리고 회복탄력성(이창옥·김난예, 2013)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지정의 측면을 모두 포함한 신앙 성숙(황동한·송정아, 2012)과도 하나님 이미지는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위의 연구들을 통해 하나님 이미지는 전인적으로 인간 삶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 형성은 노인을 위한 건강한 삶과 종교적 성숙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V.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고령사회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노인이 인생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의미 있는 삶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노인의 건강한 삶은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다양한 교육적 노력을 시도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과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 성숙에 있어서 중

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게 하고, 그 관계로 인해 노인의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교육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 교육방안을 지적, 정서적, 행위적 차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지적인 차원의 교육

1) 성경적 및 신학적 하나님 개념에 대한 교육

하나님 이미지는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느끼는 총 집합체이다(김난예, 2002, 277). 자신의 경험에 따라 하나님 이미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변형되어 가며 형성된다. 하나님 이미지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 경험의 내용과 질에 따라 다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스스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인간의 경험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신학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경험은 개인의 주관적인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주어 성경적이며 객관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년기가 되면 인지 능력의 쇠퇴로 지적인 내용을 습득하는데 제한적이지만 노인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도록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수 매체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해야 한다. 노인 학습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자의 인격과 전문성, 그리고 양성, 적절한 교육목표 및 내용 선정, 효과적인 교수 방법, 노인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교육환경의 조성, 교육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타당한 평가 방법 등 교육의 요소들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2)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존재로 노인에 대한 인식 교육

노인에 대한 양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 스스로를 교회 교육의 대상, 학습자로 보도록 교육해야 한다. 노인도 아동, 청소년, 청년과 장년 등과 똑같이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가야 할 교회 교육의 대상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할 존재이다. 사회적으로 관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는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기초가 되므로 노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며,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매 순간 그 관계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존재로 자신을 보도록 교육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하고 확인함으로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친교를 위한 단회기적이며 복지적 차원이 많은 이유는 노년기를 생산성의 주기가 아닌 서비스의 주기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길어진 노년기를 수동적으로 서비스 수혜자로만 보는 역할에서 노인 스스로 교육에 있어서 주체적이며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해야 하는 존재임을 교육해야 한다.

2. 정서적인 차원의 교육

1) 노인의 하나님 이미지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성찰 및 확인 교육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인의 하나님 이미지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님 이미지는 단기간의 교육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주변의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가 살아가면서 추가되는 경험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형되어 가는 것이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더욱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노년기에는 이미 부모들이 살아계신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살아계신 경우에도 부모 생각을 예전 시기보다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회상하며 현재의 하나님 이미지와 관련성을 확인하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이 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끌어내도록 하는 방법(Oh, 2016)이나 자서전 쓰기(오경석, 2015) 등의 방법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 치유하기 위한 교육 상담적 접근

개인의 부정적 경험에 따라 형성된 왜곡된 부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해 자신의 하나님 이미지가 종교적 삶과 건강한 삶에 영향을 끼침을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이미지가 어디에서 기원하였고 발달했는지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의 과거 경험과 현재 인식하는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 경험도 드러내야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일대일 또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 간, 학습자 상호 간에 공감하며 경청하며 삶의 경험을 드러내며 그러한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왔는지 성찰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부정적인 하나님 이미지가 개선되도록 상담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행위적인 차원의 교육

1) 부모와 조부모로서의 역할 교육

부모로부터 기원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하나님 이미지는 발달한다. 다른 많은 요인도 노인들의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Park, 2008). 노인들이 교회 교육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 이미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발달했는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부모나 조부모로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핵가족화되면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조부모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다(장신근, 2018, 293). 노년기가 되면 가정, 교회, 사회 등에서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교육의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인격의 성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녀들과 손주들과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노인 자신의 하나님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말과 행동이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교육적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되며 하나님 이미지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형성되고 발달하게 됨을 인식하고,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긍정적이며 건강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일관성 있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2)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으로 나타나도록 실천 교육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교육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과거의 경험을 드러냄으로 자신의 하나님 개념의 기원과 발달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현재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그 동기를 강화하여 행동으로 옮기도록 교육해야 한다. 알고 느낀 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하나님 개념과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그 관계가 다른 삶의 영역에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노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동적인 차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

적인 방법인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방법(Osmer, 1995), 의식화 방법(Little, 1983; Moore, 1998), 나눔의 프락시스 방법(Groome, 1997)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현재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변화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고자 결단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미지 개선을 통해 성장 및 발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전반적인 영역과도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고 사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살도록 변화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하며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여 결단하기 위한 자기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실천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박은혜, 2018).

VI. 나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된 한국교회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종교적 성숙의 과제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종교적 성숙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 형성 및 개발을 위한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교회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가 종교적 성숙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인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종교적 성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종교적 성숙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성서적 및 신학적 성숙의 개념과 종교심리학적 성숙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종교적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 이미지 개념과 성숙한 인간 삶과 관련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도록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 형성 및 개발을 위한 교회교육 방

안을 지적, 정서적, 행위적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지적인 차원의 교육으로 성서적 및 신학적 하나님 개념을 교육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존재로 노인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서적 차원의 교육으로 노인들의 하나님 이미지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성찰 및 확인하도록 교육할 것과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 치유하기 위한 교육 상담적 접근으로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행위적 차원의 교육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조부모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교육할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으로 나타나도록 실천을 유도하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회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노인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격려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고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발달 수준과 욕구에 따라 노인의 삶에 적합하며 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교회교육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목회적, 선교 및 복지적, 교회교육적 접근을 교회의 상황에 따라 노인을 위한 교회교육을 계획하고 수행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육적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노인의 건강한 삶이 종교적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면의 제한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을 위한 교회교육의 제한점은 언급하였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교육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양적 연구를 통해 종교적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들과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와 실제적인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등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성봉·조성숙 (2013). 노인의 종교활동과 신앙태도가 우울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3)**, 325-346.
- [Kang, S. B., & Cho, S. S. (2013). Effects of religious activities and faith attitudes on depression and ego-integrity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 Academy*, *13(13)*, 325-346.]
- 김난예 (2002). 기독교와 카톨릭 학생들의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30(1)**, 275-605.
- [Kim, N. Y. (2002). A study on the image God of Christianity and the Catholic students. *The Gospel & Practice*, *30(1)*, 275-605.]
- 김동규 (2002). 노인의 종교 및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Kim, D. K. (2002). Research on the factors impa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senior citizens religious and social activities: Focusing on senior citizens in Gimcheon city, Gyeonsangbuk-do Province. Master's thesis at the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 김사훈 (2005). 내면화 과정과 하나님 이미지 형성간의 관계 연구: 한국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Kim, S. H. (2005). A study on the relation of God's image formation and internalizing process-based on Korean Christians-. Ph.D. Dissertat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 김은정 (2016) 삶의 재건을 위한 노년기 교육. **인문학논총**, **40**, 177-200.
- [Kim E. J. (2016). Education in older adulthood for the reconstruction of life. *The Journal of Humanities*, *40*, 177-200.]
- 김정준 (2009). 노인 기독교교육의 통합적 접근-선교·교육·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문화와 신학**, **14**, 191-216.

- [Kim, J. J. (2009). A study on integrated approach to Christian education for the old adult: missio·education·social welfare. *Culture & Theology*, 14, 191-216.]
- 김정준 (2017). 21세기 한국사회와 노인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집, 415-456.
- [Kim, J. J. (2017). Korean society and new challenges and directions of Korean society of senior ministry in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of Practical Theological Seminary Periodic Academic Seminar Material*, 415-456.]
- 김정준 외 (2018).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감리교회의 노년목회**. 서울: 인테그리티.
- [Kim J. J. et al. (2018). *Age of 100, senior pastoral ministry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Seoul: Integrity.]
- 김정희 (2014). 노인의 우울증과 종교 활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신학과현장**, 24, 195-214.
- [Kim, J. H. (2014).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beliefs of elderly. *Theology & Context*, 24, 195-214.]
- 김정희·박은혜 (2021). 코로나 시대 기독 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6, 243-272.
- [Kim, J. H., & Park, E. H. (2021). A study on the method of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religious life of the Christian elders during the Corona perio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6, 243-272.]
- 김재석 (2008). 대학생의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수준의 차이. **상담학연구**, 9(1), 15-28.
- [Kim, J. S. (2008). A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irrational levels of according to their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1), 15-28.]
- 김지윤·황혜리 (2013). 하나님 이미지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4(6), 3723-3737.

- [Kim, J. Y., & Hwang, H. R.(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God's im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Verification of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6)*, 3723-3737.]
- 김형길·다니엘 김 (2016).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대응. **로고스경영연구, 14(4)**, 191-210.
- [Kim, H. G., & Kim, D. J. (2016).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of Korea and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church. *Logos Management Review, 14(4)*, 191-210.]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2000).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General Assembly Education Depart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ed.) (2005). *Korean church and senior ministry*. Seoul: Korea Presbyterian Church Publishing Corporation.]
- 박미하 (2014).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신앙과학문, 19(1)**, 77-96.
- [Bak, M. H.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religious orientation of Christians on depression: Verification of the mediation. *Faith & Scholarship, 19(1)*, 77-96.]
- 박미하 (2017).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복음과상담, 25(1)**, 37-64.
- [Bak, M. H. (2017).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ligious disposi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5(1)*, 37-64.]
- 박신경 (2011). 아름다운 마무리 노년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 **신학과목회, 36**, 159-179.
- [Park, S. K. (2011). The beautiful completion: Perspectives of Christian education for later adult. *Theology and Ministry, 36*, 159-179.]
- 박은혜 (2015). 어린이의 관계적 영성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종교성과 양육태도와의

- 관계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43, 229-260.
- [Park, E. H. (2015). Understanding of Children's relational spirituality and its relationships with parents' religiosity and parenting styl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3, 229-260.]
- 박은혜 (2018). 자기성찰 일지의 교회학교 교사교육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57, 33-61.
- [Park, E. H. (2018). A study of church school teacher education through self-reflective journal.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7, 33-61.]
- 박현식 (2008). 복지선교를 위한 교회노인교육 활성화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20, 343-378.
- [Park, H. S. (2008). Program for church elderly education in order to promote welfare miss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0, 343-378.
- 백찬규 (2017). **젊은 노인의 탄생**. 서울: 원앤원북스.
- [Baek, C. K. (2017). *The birth of a young old man*. Seoul: One and One Books.]
- 서문진희 (2010). 종교와 노인의 우울증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교회사회사업**, 12, 67-95.
- [Seomun, J. H. (2010).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depression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people. *Church Social Work*, 12, 67-95.]
- 서유진·이규미 (2016). 내재적 종교성향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 감사성향과 사건중심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3), 441-456.
- [Seo, Y. J., & Lee, K. M.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mediating effects of gratitude and event central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3), 441-456.]
- 송욱·김윤주·한성열 (2009).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4), 469-486.
- [Seo, Y., Kim, Y. J., & Han, S. Y. (2009). The difference in the Christians' shame and guilt-feeling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propensity.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5(4), 469-486.]

연합뉴스 (2021) 달라지는 노인세대. [https://www.yonhapnewstv.co.kr/news/](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607015400038?did=1947m)

MYH20210607015400038?did=1947m, 추출일: 2021. 8.10.

[The changing generation of the elderly. Yonhapnews]

오경석 (2015). 교회 노인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자서전 쓰기 모형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45**, 203-225.

[Oh, K. S. (2015). A model development of autobiography writing church program for the elderly.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5*, 203-225.]

오인근 (2014).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에 따른 우울의 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회사회사업, 28**, 7-32.

[Oh, I. K. (2014). The effect of depression on religious orientation i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With a focus on the mediation effect of stress. *Church Social Work, 28*, 7-32.]

유은희 (2016). 연령주의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에 관한 제언. **기독교교육정보, 51**, 121-161.

[Yoo, E. H. (2016). Ageism and educational ministry for babyboomers in the church.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1*, 121-161.]

윤갑수 (2010).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회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25**, 319-349.

[Yoon, K. S. (2010). Plans for vitalizing church's education for the aged in the aging society.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5*, 319-349.]

이영미·조윤옥 (2013). 기독교노인의 하나님 이미지와 죽음불안과의 상관관계. **상담학연구, 14(4)**, 2469-2484.

[Lee, Y. M., & Joe, Y. O. (2013). Correlation between death anxiety and the image of God for Christian elderly peopl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4)*, 2469-2484.]

이영숙 (2009). 노인들의 종교 활동 및 신앙성숙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

국노인의료복지학회지, 1(1), 61-77.

[Lee, Y. S. (2009). The effect of elderly faith maturity on successful aging.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1(1), 61-77.]

이영희·박준하(2011). 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189-209.

[Lee, Y. H., & Park, J. H.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image of God which perceived by Christian youth according to the faith-related variations. *Korea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1, 189-209.]

이은성 (2016). 고령화 한국 사회와 교회 노인교육의 복지적 접근 및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7, 161-188.

[Lee, E. S. (2016). Aging Korean society and a welfare approach to church senior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7, 161-188.]

이정관 (2014). 100세 시대의 노인에게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의 과제. **신학과실천**, 39, 389-411.

[Lee, J. K. (2014). Caring for the Christian education needs of the elderly. *Theology and Praxis*, 38, 389-411.]

이종석·정득 (2018). 종교성과 교회생활이 교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78(1), 71-100.

[Lee, J. S., & Jung, D. (2018). Impacts of individuals' intrinsic religiosity and activities in church on the degree of their satisfaction with church: The case of Korean methodists. *Studies in Religion*, 78(1), 71-100.]

이창욱·김난예 (2013). 부모 양육태도와 하나님 이미지가 후기 아동기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교육논총**, 34, 93-120.

[Lee, C. O., & Kim, N. Y. (2013). The effects of the parenting attitudes and the image of God on the resilience of late childhoo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4, 93-120.]

- 장신근 (2018). 통전적 신앙교육을 위한 가정-교회 연계 격대교육-아동기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50(1), 291-322.
- [Jang, S. K. (2018). A study on the family-church ties grandparenting for nurturing holistic faith: Focusing on the childhood.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0(1), 291-322.
- 전혜정 (2003). 노년기 적응과 종교성. **인간과 문화연구**, 8, 161-192.
- [Jeon, H. J. (2003). Adaptation and religiosity in old age. *The Journal for the Study of Humans and Culture*, 8, 161-192.]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 (2005).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점 함의-‘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hung, K. H. et al. (2006). Curr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of elderly culture-focusing on a critical review of the successful aging discours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정민선·박미하 (2015). 기독 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 **복음과상담**, 23(1), 259-286.
- [Jung, M. S., & Bak, M. H. (2015).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illusions in the relation betwee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behavior. *The Gospel and Counseling*, 23(1), 259-286.].
- 제석봉·이성배 (1996). 종교성향 검사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2(1), 53-76.
- [Je, S. B., & Lee, S. B.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dysfunctional behavior and religious problem solving style = Development of Religious Orientation Scale. Research Bulletin of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Hyosung, 52(1), 53-76.]
- 제석봉·추진규 (1996). 외재적-내재적 종교성향과 불안(T-Anxiety) 및 부적응과의 관계.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3(1), 121-134.
- [Je, S. B., & Choo, J. K. (1996). The relationship of the trait anxiety and maladjustment to the extrinsic-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Research

Bulletin of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Hyosung, 53(1), 121-134.

조영주·이지연·장진이 (2012). 신앙을 가진 중년여성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2), 203-225.

[Cho, Y. J., & Lee, J. Y., Jang, J. Y. (2012). The effect of intrinsic religiousness on the negative emotions of middle-aged women: Mediating effect of forgiveness. *Korea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3(2), 203-225.]

조윤영·최봉도 (2017). 대학생의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의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죽음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77(3), 67-92.

[Cho, Y. Y., & Choi, B. D. (2017). The effects of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on meaning of life, and well-be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s recognition of death, *Studies in Religion*, 77(3), 67-92.]

조윤옥 (2012). 대학 신입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하나님 이미지와 자기개념 명료성의 상관성 연구. **신학과실천**, 31, 309-342.

[Cho, Y. O. (2012). Relationship analysis of the God image and the self-concept clarity depending on backgrounds of university students. *Theology and Praxis*, 31, 309-342.]

최명희 (2011). 넬슨(C. E. Nelson)의 회중중심교육론에 근거한 기독교노인신앙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28, 167-189.

[Choi, M. H. (2011). A study on Christian older adult faith-education based on Carl E. Nelson's congregation-centered education theory.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8, 167-189.]

최은경·김윤희 (2015).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및 분노표현간의 구조적 관계. **인간이해**, 36(1), 129-145.

[Choi, E. K., & Kim, Y. H. (2015).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religious orientation, religious coping, and anger expression among Christian colleg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6(1), 129-145.]

최창식·한재희 (2012). 노인의 종교정향성과 삶의 태도 및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1), 213-251.

[Choi, C. S., & Han, J. H. (2012). Path analysis for elderly orientation, life attitude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24(1), 213-251.]

통계청 (2017.1.5.). 성별/연령별/종교별 인구-시군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 추출일: 2021. 5. 20.

[Kosis (2017.1.5). Population by Gender/Age/Religion-SiGunGu.]

통계청 (2019.3.28.). 주요 인구지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 추출일: 2021. 5. 20.

[Kosis (2019.3.28.). The leading Population Indicators.]

한경옥·전요섭 (2012). 노인의 영적 안녕감 형성이 죽음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상담**, 19, 296-323.

[Han, K. O., & Jeon, J. (2012). The effect of improved spiritual well-being in the elderly on reducing death anxiety. *The Gospel and Counseling*, 19, 296-323.]

한정란 (2005).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Han, J. R. (2005). *Understanding the Elderly*. Seoul: Hakjisa.]

황동한·송정아 (2012). 하나님 이미지가 자아존중감과 신앙성숙 그리고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2), 253-279.

[Hwang, D. H., & Song, J. A. (2012). The influence of the image of God on self-esteem, spiritual matur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23(2), 253-279.]

황혜리·김경탁 (2005).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자존감의 관계-H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1), 275-286.

- [Hwang, H. R., & Kim, K. T.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college students' God image and their self-estee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1)*, 275-286.]
- 황혜리·김미경(2003). 기독교인의 하나님 이미지와 비합리적 신념의 상관관계. **상담학연구, 4(4)**, 867-881.
- [Hwang, H. L., & Kim, M. K. (2003). The relationship of Christian's God image between irrational belief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4(4)*, 867-881.]
- 황혜리·김미경 (2004). 자존감, 대인관계능력, 적응유연성, 생활만족도와 하나님 이미지간의 관계: H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4)**, 1281-1292.
- [Hwang, H. L., & Kim, M. K. (2004). The relationship among Christians'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resilience, life satisfaction, and God imag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4)*, 1281-1292.]
- 황혜리·김주현 (2007). 기독교 신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및 하나님 이미지와 연관성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4(12)**, 311-335.
- [Hwang, H. L., & Kim, J. H. (2007). A study on correlation of the parenting bonding instrument, interpersonal problem due to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God's image of freshmen in Christia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14(12)*, 311-335.]
- 황혜리·김지윤 (2012). 기독교 상담에서 하나님 이미지의 중요성 연구-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영적 안녕,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263-286.
- [Hwang, H. L., & Kim, J. Y. (2012).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God image in Christian counseling: Based on the relationship God's image, spiritu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hristi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23(1)*, 263-286.]
- 황혜리·류수정 (2006).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91-212.

- [Hwang, H. L., & Ryu, S.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God's image and depression in Christi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11*, 191-212.]
- 황혜리·이은혜 (2016). 하나님 이미지와 자기용서의 관계: 낙관성과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3)**, 217-243.
- [Hwang, H. L., & Lee, E. H.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of God and self-forgiveness: Verification on mediation effects of optimism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27(3)*, 217-243.]
- 홍구화 (2011).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념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333-350.
- [Hon, G. H. (2011). The impact of beliefs in God locus of control and images of God on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21*, 333-350.]
- Allport, G. (1959). Religion and prejudice. *Crane Review, 2*, 264-265.
- Allport, G., & Ross,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32-443.
- Allport, G. (1985). **인간과 종교** (박근원 역). 서울: 양서각. (원전 1967 출판)
- [Allport, (1985).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Park, K, W. trans.). Seoul: Yangseogak. (original work published 1967).]
- Benson, P., & Spilka, B. (1973). God image as a function of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2(3)*, 297-310.
- Groome, T. (1997). **나눔의 교육과 목회**. (한미라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원전 1991 출판).
- [Groome, T. (1997).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and pastoral ministry*. The way of shared praxis. (Han, M, R. trans.). Seoul: Christian Methodist Association Publication. (original work

- Published 1991).]
- Habermas, R., & Issler, K. (1996). **화목을 위한 가르침**. 김성웅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원전 1992 출판).
- [Habermas, R., & Issler, K. (1996). *Teaching for reconciliation: Foundation and practice of Christian educational ministry*. (Kim, S. U. Trans.). Seoul: Book Publishing Timothy. (original work Published 1992).]
- Hood, R. (1971). A comparison of the allport and feagin scoring procedures for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0(4), 370-374.
- Little, S. (1983). **기독교교육 교수방법론**.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전 1983 출판).
- [Little, S. (1983). *To set one' heart: Belief and teaching in the church*. (Sa, M. J. 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Moore, E. (1998). **심장으로 하는 신학과 교육**. 장대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원전 1991년 출판)
- [Moore, E. (1998). *Teaching from the heart: Theology and educational method*. (Jang, D. H. trans.). Seoul: Korea Theological Research Institute.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 Oh, K. S. (2016). Christian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Their Life and Faith Stor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5, 181-210.
- Osmer, R. (1995).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전 1989 출판)
- [Osmer, R. (1992). *Teaching for faith: A guide for teachers of adult classes*. (Sa, M. J. Trans.). Seoul: Korea Presbyterian Church Publishing Department. (original work published 1989).]
- Park, E. H. (2008). The origins of the God-concept and its development in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3, 113-134.

- Schaefer, C. & Gorsuch, R. (1991).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religiousness: The multivariate belief-motivation theory of religiousnes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0(4), 448-461.
- Rizzuto, A. (2000). **살아있는 신의 탄생**.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81 출판)
- [Rizzuto, A. (2000). The birth of the living God. (Lee, J. H. Trans.). Seoul: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Church Education
for the Elderly's Religious Maturity**

Eunhye Park

Associate Professor, Sungky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religious maturity is necessary for the healthy life of the aged of Korean churches in the rapidly aging society. It is also to suggest educational method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positive image of God for relations with God, which is essential factor in religious maturity. To this end, this study argues that the direction and task of senior education should be religious maturity through the search for prior research on church education of senior citizens. This study also looked at the variables involved in how religious maturity affects many areas of human life. To achieve the task of religious maturity,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concept of maturity and religious psychological concepts of maturity are summarized, and the concept of God's image for relations with God, which is important in religious maturity,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mature human life are examined. This study was proposed methods of church education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positive image of God in order to have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for the religious maturity of the elderly on intellectual, emotional and behavioral levels. In the intellectual aspect, it was proposed to educate the concept of biblical and theological God and and to educate the elderly to recognize themselves as beings that need to grow and mature in order to constantly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God. In the affective aspect, it was proposed to educate the elderly to reflect on and identify 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God's

image and to heal their distorted God's image with an educational counseling approach. In the behavioral aspect, it was suggested to educate their roles of faith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as parents and grandparents and to educate using educational methods that induce them to practice their relationship with God to appear in daily life.

《 **Keywords** 》

The Elderly, Church Education, Religious Maturity, Religiosity,
Relationship with God, Concept of God, the Image of God

- 투고접수일 : 2021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9월 29일